『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중동학과 32170805 김예원

 페미니즘 혹은 페미니스트 라는 단어를 접할 때 요즘 현대 한국인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릴 것이다. 수용하거나 거부하거나. 나는 굳이 따지자면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라 이 책을 펴 보기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짧은 문장들과 친근한 어조로 시작되는 내용들을 읽으며 작가가 특별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특별한 사고방식이란 적당한 단어를 내가 찾을 수 없었기에 임의로 적어낸 말이다.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지게 다름을 일컫는 특이하다는 형용사를 그녀에게 함부로 사용하고 싶지 않았다. 이러한 마음이 들게 된 이유는 뒷부분의 인터뷰 챕터를 보게 되면서인데, 그 장에서 그녀는 나이지리아 사회에서는 여성이 문화적으로 특정한 모습과 행동을 강요당한다고 설명했다. 나는 페미니즘이 하나의 학문이라기 보다는 문화적, 사회적인 무형의 사고가 유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페미니즘 자체가 옳던 그렇지 않던 페미니즘은 사회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페미니즘 사상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도 100인 100색의 페미니스트가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알지 못하는 시대에, 내가 잘 알지못하는 나라에서 태어나 자란 그녀가 자기의 경험을 써 내린 글에 대해 ‘당신은 지나치게 공격적이군요’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지않다.

그러나 그녀의 글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수용할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선뜻 대답할 수 없다. 책 중간쯤 남성의 인권에 대해서 다루기는 했지만 그것은 지나치게 짧았고, 또한 내가 보기에는 여성의 인권이 이만큼 이나 나쁘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움닫기용 이야기 였다고 생각된다. 여자아이들이 “얌전해야해, 조심해야해”는 말을 끊임없이 들어온 것과 진배없이 남자아이들 또한 “용감해야해 씩씩해야지, 남아일언 중천금이야”와 같은 성적 고정관념이 반영된 말들을 끊임없이 들어온다. 남성이 어떤 사소한 일에 기분 나빠 하거나 분노하면 “남자가 째째하게. 그럴거면 고추 떼.”라는 말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특히나 한국사회에서 남자들은 청춘의 2년을 군대에서 썩히는데, 이러한 일련의 모습들만 보아도 한국사회가 얼마나 성균형이 일그러져 있는지 알 수 있다.

치마만다는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한다고 말한다.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말이다. 그러나 그녀의 주장은 그녀가 성 억압과 평등의 중심을 여성에서 남성으로 확대시킬 때 비로소 타인들에게 수용될 것이다.